조선대, 몽골에 '아시아 거점센터' 설립

몽골 교육관광유학협회와 MOU
K-교육 확산·글로벌 교류 활동

조선대 김춘성 총장(왼쪽에서 네번째)과 델게르체첵(〃 세번째) 몽골 교육관광유학협회장 등이 최근 아시아(몽골) 거점센터 MOU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 제공〉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가 몽골 다르항에 '아시아(몽골) 거점센터'를 설립하며 K-교육 확산과 글로벌 교류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15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조선대는 지난 10일 몽골 다르항에서 몽골 교육관광유학협회(협회장 델게르체첵, Rentsendorj Delgertsetseg)와 '아시아(몽골) 거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을 비롯한 대외협력처 대표단, 몽골 다르항 교육감과 어유니 이레뒤 고등학교 대표단이 함께 참석해 양국 교육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대학은 거점센터를 통해 프리스쿨 학점 인정, 한국어·문화교육 확대, 우수 인재 유치·양성, 광주 기업 연계 취업·정주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르항을 기반으로 몽골 전역으로 교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몽골 다르항 루브산 부얀바트(Luvsan Buyanbat) 교육감은 "조선대학교와 어유니 이레뒤 고등학교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아시아(몽골) 거점센터 설립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 기관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김춘성 총장은 "조선대는 어유니 이레뒤 고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해 한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 확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며 "이번 거점센터 설립을 계기로 몽골 전역으로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for Sustainable Education) 사업의 글로벌 확장 전초기지로 아시아 거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현지 예비 유학생 대상 프리스쿨 운영과 한국어 교육을 통해 K-교육 확산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수 유학생 선발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과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안착 총력 지원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선순환 교육생태계' 구축 모색

전남교육청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안착을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19일까지 전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전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전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각 시범지역별로 교육발전특구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청 및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교육발전특구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이 컨설팅은 교육발전특구 2차연도 운영에 대한 교육부 성과관리 대비를 위해 역량 강화 세션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교육발전특구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강사와 컨설턴트로 참여해 업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 담당자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안정적인 안착과 함께 지역 중심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역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지역 정주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만 전남도교육청 학령인구정책 과장은 "이번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전남도의 교육발전특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인문리빙랩 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조례에 힘 보태

'인문커뮤니티역량워크숍' 결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대학 인문학과 연구팀이 힘을 보태 눈길을 끈다.

15일 전남대에 따르면,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류도향 교수의 인문리빙랩(Living Lab) 팀은 '광산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주도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가정 자녀 등 한국으로 이주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뜻한다. 2024년 10월 기준 광산구에는 약 2만6500명의 외국인이 거주해 광주 전체 외국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약 2500명이 이주배경청소년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2025학년도 1학기 '인문커뮤니티역량워크숍' PBL 수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학생들은 광산구의 현안인 이주배경청소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소통과 관계성에 기반한 인문학적 접근으로 지역 문제를 해석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고자 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은 그 결실이다.

팀에는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대학원생이자 지역 현장 전문가인 강한솔 광산구 의원,,한송희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 마을부장, 정은주 숭일고 교감, 유진영 효광초 교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인터뷰·현장 조사·문헌 연구를 통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고, 강한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 8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는 광산구청장이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과 진로·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비·교통비 등 수당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류도향 교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지역의 실제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 개선으로 연결한 소중한 성과"라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모델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해외연수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아랍에미레이트·뉴질랜드 등 6개국서 어학연수·진로 탐방

교육부 2025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여름방학 동안 재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아랍에미레이트, 뉴질랜드, 호주, 벨기에, 일본 등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재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사진〉

15일 동신대에 따르면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된 '뉴질랜드 해외연수'에 동신대 학생 25명, 타교 5명 등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한국장학재단 파란사다리사업 유형의 일환으로 운영된 이번 프로그램은 전공과 연계된 해외 사례를 탐방하고, 전공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술장학생 하계 연수'는 지난달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학생 30명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 두바이 미래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해 AI를 활용한 미래 사회를 체험하고, 건축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특히, 두바이 스마트 시티 시스템과 도시 계획 사례를 접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방문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8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일간 펼쳐졌다.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학생 14명이 참여했으며, K-POP의 미래를 이끌어갈 루키로서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학생들은 벨기에 그랑 팔레스와 네덜란드 뮤지엄 플레인 광장 앞에서 현지 관객들과 소통하며 K-POP, 한국무용 등 한국을 알리는 버스킹을 펼치고, 매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댄스 페스티벌 2025 Summer Dance Forever에 전원이 출전해 전 세계 댄스 전문가들과 한 무대에서 실력을 겨뤘다.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12월까지 16주간 진행되는 '호주 브리즈번 파란사다리 2유형 해외연수'와 '일본 구마모토 한일대학생 해외연수'도 진행되고 있다.

동신대는 내년 1, 2월 겨울방학에는 20명을 선발해 '글로벌 역량강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ELA에서 어학연수를 받으며 외국어 실력을 높이고 현지 문화를 가까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원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와 청년 마음건강 증진 MOU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는 지난 12일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센터장 백희정)와 청년층 마음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송원대학교 권성옥 대외협력부총장, 고광용 진로지원처장, 김용민 학생상담센터장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센터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청년층 은둔형외톨이의 마음건강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 위험군 조기발견 체계 구축, 치유와 청년도전 프로그램 연계, 전문상담원 교류 및 공동 위탁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원대 권성옥 대외협력부총장은 "청년층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이 가진 상담·교육 역량과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결합해 청년들이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버들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